

—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

보속의 교회



M. Kyle

**“너희 마음 안에
보속의 교회로
이 대성당을 재건하여라.”**

- 하느님 아버지 / 2019년 4월 16일

알 릫

본 책자는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가 출판한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보속의 교회**의 자매편입니다. 본 책자에 수록된 모든 메시지는 천상이 미국인 목격증인 모린 스위니-카일(Maureen Sweeney-Kyle)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모든 공적 메시지는 www.holylove.org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의 현행 법적 해설:

로마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발현과 목격 증인들에 관한 지침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AAS58 (1966년), 구 교회법전 1186 쪽의 1399 조항과 2318 조항이 폐기된 이후 신앙과 도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교회의 허락 없이도 새로운 발현과 계시, 예언, 기적 등에 대한 출판물을 배포하거나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현대 목격증인과 발현 들에 관한 식별

저자: 알버트 J. 허버트
(Albert J Hebert, S.M., Page III)

목 차

| | |
|---------------------------|----|
| 서문 | 4 |
| 절박한 시대 | 6 |
| 새로운 보속의 삶 - 초대와 구성원 | 7 |
| 보속(자비)의 교회(대성당, 방주) | 8 |
| 약속, 보상, 위로 | 10 |
| 보속의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요청 | 11 |
| 보속을 바치는 영혼의 마음의 특징 | 13 |
| 희망과 격려, 도움의 말씀 | 14 |
| 기타 말씀들 | 15 |
| 십자가에 봉헌하는 기도 | 16 |

아침 기도 - 희생을 봉헌하는 기도

“사랑하을 신성하신 구세주 예수님, 오늘 저의 육체적, 영적, 감정적인 모든 고통을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저는 오늘 당신께서 제 삶에 허락하신 불편이나 시간을 빼앗는 일, 사생활 침해나 사람들의 무례함에 대해 불평하지 않겠나이다. 당신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매 현 순간을 받아들이겠나이다. 아멘.”

“이것은 현 순간부터 시작하여 여러분의 온 삶을 사랑스럽고 감미롭게 예수님께 내맡기는 기도입니다. 이 짧은 기도문은 자기 부정을 위한 봉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바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아침 이 기도를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저를 보내신 이유는, 이 기도를 아침에 바치면 여러분이 그날의 크고 작은 희생들을 주님께 봉헌하는 것을 잊는다 하더라도 이 미 그분께 봉헌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 성 마르티노 데 포레스 / 2006년 11월 3일

서 문

+ 1993년 3월 4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진실되게 봉헌하려면, 너희는 너희 삶 속의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하느님의 처벌이 임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이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내 자녀들아, 그러니 십자가를 통해 너희의 마음을 거룩함 안에서 준비하여라.”

+ 2004년 10월 11일 복되신 어머니: “아이야, 나는 너희가 오늘날 전세계의 교회 안에서 신앙의 전통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교회 자체가 갖은 논쟁과 추문과 혼란에 뒤덮여 내 아들이 세운 교회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나는 너희가 오늘날 세상에 있는 이 선교사업에 대해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천상은 모든 이의 마음 안에 하느님의 뜻이 군림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관문으로서 이 선교사업을 전 세계에 세우고 계신다. 하느님 뜻의 왕국으로 가는 관문은 바로 내 티 없는 성심이다. 모든 이의 마음이 거룩한 사랑인 내 성심의 불꽃으로 정화되기 전에는 세상에 이 왕국이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랑의 불꽃은 모든 잘못을 드러내고 오류를 깨닫게 한다. 그러므로, 교회가 신앙의 전통 안에서 재건되기 위해서는 교회 자체가 반드시 이 불꽃을 통과해야 한다.”

“양심 조명이 일어날 때, 내 성심의 불꽃이 세상을 감쌀 것이다. 그때 노인과 젊은이, 바리사이와 신학자, 교회 고위 성직자와 사제와 평신도들 모두가 하느님 앞에 선 자신의 처지를 거룩한 사랑에 비추어 깨닫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이 선교사업은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하도록 곧,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사랑에 따라 살도록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성지에서 일어나는 징표와 기적 들은 사람들을 메시지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이것들은 천상이 이곳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나는 교회를 천천히 안에서부터 재건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제들이 이 성지로 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나는 이 선교사업의 목적에 대해 너희에게 좀 더 확실하게 설명해 주었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교회나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을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할 때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 2009년 5월 5일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 “오늘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인 내 칭호를 경축하면서, 나는 너희가 천상이 지금까지 이 성지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왔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처음에 나는 ‘신앙의 보호자’

라는 칭호를 얻고자 왔었다. 이 칭호는 많은 이단과 진보주의로부터 미국 교회를 구했을 것이지만 ‘필요치 않다’는 판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서는 보편된 교회의 안정을 위해 희생하는 희생영혼들로 구성된 신비적 개념인 ‘보속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메시지들도 진리에 비추어 검토되지 않았다. 그 후에 ‘하나된 성심의 계시’에 이어 ‘하나된 성심의 심방들에 대한 계시’도 연이어 나왔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의심을 받았다.”

“너희는 설령 자신의 판단을 강요하는 이들이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천상의 도움의 손길을 거스르는 이런 판단들은 진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탄에게 속지 말고, 사탄은 교회와 세상, 모든 영혼의 파멸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여라.”

+ 2010년 11월 26일 복되신 어머니:

“오늘 나는 다시 한 번 빈손으로, 그리고 내 성심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고 왔다. 나는 내 손을 너희의 희생으로 가득 채우고, 내 성심을 너희의 기도로 채우려는 너희의 노력을 기다린다. 이 선교사업을 통해 각 영혼은 진리의 승리를 위해 사랑의 희생 영혼과 기도 용사가 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기도 용사들은 행복하지 않으며 엄청난 적 앞에서도 계속해서 싸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박해와 거짓말 그리고 권력 놀음 가운데에서도 절대 행복하지 말기를 바란다. 진리는 어떤 위험 속에서도 너희를 강화시켜주는 너희의 동지가 될 것

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에 대한 내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절박한 시대

“모든 것의 주님이자 창조주인 나로 하여금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지상에 와서 너희에게 말하게 만드는 이 절박함을 인류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 하느님 아버지 / 2017년 8월 16일

사람들은 계속해서 선보다 악을 선택하고 있다. 고난의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도둑이 타협이란 옷을 입고 거룩한 장소에 들어앉았다. 어둠은 자신을 자유와 빛이라고 선전하면서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 하느님의 정화의 시기가 닥치면 선택할 시간이 없게 될 것이다. 선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영혼들은 선을 선택하지 않고 망설인데 따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미 구원을 위한 모든 기회와 은총이 각자에게 다 주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 성심은 온갖 노력을 다 쏟았을 것이며, 내 망토는 모든 이에게 제공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오늘 내 부름이 얼마나 절박한지, 또 영혼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얼마나 내가 그를 데려다 내 품에 안아주고 싶어하는지 알 것이다.

- 과달루페의 성모님 / 1995년 6월 11일

왜 지금 이 시대가 절박하다고 말하는가?

+ 1989년 8월 2일 성모님: “나는 보속 하라고 모든 영혼을 부른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심연이 너무나도 깊다.”

+ 1990년 2월 25일 성모님: “내가 우리의 하나된 성심에 보속하라고 영혼들을 부르는 이유는 이렇다. 너희는 내 사랑 하올 아드님의 성심을 짓누르고 있는 죄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분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보속이 필요한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일어난 세계의 사건들 때문에 안심한 나머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성심에 보속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하여라. 이것은 인류를 향한 내 마지막 호소다. 더이상 나 혼자서는 받쳐

드릴 수 없을 만큼 내 아드님의 팔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심판의 팔이 떨어질 때, 그때는 보속하기엔 너무 늦었을 것이다.”

+ 1990년 3월 14일 성모님: “너희는 이 나라(미국)가 낙태를 합법화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얼마나 큰 위험에 빠트렸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대량 학살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과 천국 사이의 심연이 매일 매일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여라.”

+ 1990년 10월 16일 성모님: “너희는 이 나라(미국)에서 보속의 징표가 되어야만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

지 않는 이들 가운데서도 보속에 관해 말 하여라. 너희의 목주기도가 끝난 후 나와 함께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다오. 주님의 기도 세 번과 영광송 세 번을 바쳐다오.” 그런 다음 성모님께서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웃의 죄를 위해 진심으로 보속을 바칠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 2006년 11월 5일 예수님: “언제나 그렇지만 오늘 나는 내 남은 신자들에게 말하러 왔다. 세상의 마음은 공격적인 자

기만을 위한 사랑에 이리 저리 채이고 양육되어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 나는 죄와 오류가 세상을 짓누르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에 내 비통한 성심을 위로해 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성한 희생 제물이 되기로 선택한 희생 영혼들의 군대가 필요하다.”

+ 2014년 2월 3일 성모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아드님의 성심에 상처를 입히는 진리의 훼손과 권한 남용의 죄가 천상과 지상 사이의 심연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새로운 보속의 삶 - 초대와 구성원

새로운 삶의 방식; 우리의 (하나된) 성심에 보속하는 데 헌신하는 삶; 내 사랑하는 아드님께서 우리의 성심에 보속하는 이 새로운 보속의 삶에 너희 자신을 봉헌할 것을 요청하실 것이다. - 성모님 / 1989년 11월 3일

누가 초대받았으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 1989년 11월 3일 성모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참여하라고 너희를 초대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된) 성심에 보속하는 데 헌신하는 삶이다. 나는 사제와 수도자들, 평신도,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모두 초대한다. 이것은 지금 자신을 세상에 바치지 않은 사람이 소수에 불과할 만큼 인류가 세상에 자신을 바쳤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이 시대에 불가피한 삶의 방식이다. 내 사랑하는 아드님께서 우리의 성심에 보속하는 이 새로운 보속의 삶에 너희 자신을 봉헌할 것을 요청하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내 자녀들아, 너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여라. 믿음과 평화 안에 머물러라.”

+ 1990년 5월 4일 성모님: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나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보속의 교회로 들어올 그런 영혼들을 찾고 있다. 내 신성한 아드님의 성심과 내 성심을 찢는 엄청난 죄를 보속하기 위해 아무 망설임 없이 자신의 삶을 봉헌할 영혼들을 찾고 있다.”

+ 1990년 5월 30일 성모님: “보속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영혼이 우리의 성심에 보속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 영혼에게 당신의 아름다운 보속의 대성당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신다. 오직 예수님과 너희들의 보속 행위만이 이 교회의 문을 열 수 있다. 이 교회는 내 사랑하는 아드님의 성심과 내 성심에 매우 소중하다... 그래서 나는 내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위대한 보속의 교회의 계단을 올라 문을 열고 들어와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이 아름다운 피신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예수님의 초대를 기꺼이 그리고 열망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나는 언제나 이 대성당 안에 있으며 너희와 함께 기도한다. 이곳에서 너희는 믿음과 사랑, 평화의 표징인 것이다.”

+ 1990년 8월 11일 성모님: 미사 전에 나(모린)는 그리스도의 장엄한 보속

의 교회가 신자들 머리 위에 떠 있는 것을 보았다. 앞문은 완전히 열려 있었으나 들어가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교회 앞에는 많은 사람이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청소년들이었다. 나는 주님께 여쭙 보았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보속의 교회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이 보속의 교회에 들어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마음에서 우려나오는 희생을 바쳐라. 너희가 희생을 바칠 때,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영혼들에게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달라고 내게 청하여라. 내가 단언컨데, 내 보속의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은 모두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그런 희생을 바쳐서 (보속의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 저는 사랑으로
과거의 제 모든 십자가를
당신께 드립니다.**

보속(자비)의 교회 (대성당, 방주)

그것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유일한 피신처같이 보이는 이유는 하느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나가고 메말라버린 많은 사람들의 보속의 기도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 복되신 동정 마리아 / 1990년 2월 1일

+ 1991년 2월 8일 성모님: “지상의 보속의 교회는 사람들이 그들의 희생으로 건설하는 아름다운 대성당이다. 이 보속의 교회는 현실 안주와 성적 욕망과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메마른 사막의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희생의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올림으로써 이 대성당은 세상에 있는 사탄의 왕국보다 훨씬

더 높이 솟아오르기 시작한다.”

“천국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드님께서 보속의 교회를 내 티 없는 성심 안에 두고 계신다. 내 성심 안에서는 모든 벽돌, 모든 희생 하나하나가 은총으로, 아름다운 은총으로 변화된다. 그런 다음 이 모든 은총은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지상의 영

혼들에게 그들의 회심과 구원을 위해 베풀어진다. 내 모성적인 성심은 이 보속의 교회를 감싸고 보호한다. 그 어떤 것도 이 교회에 대항할 수 없다. 어떤 적도 그리스도께서 큰 사랑으로 돌보며 지으시는 이 교회를 뚫고 들어갈 수 없다.”

+ 1991년 6월 7일 / 예수 성심 대축일:

예수 성심 대축일에 나는 예수님의 성심 안에 있는 보속의 교회(보통 회색임) 환시로 보았는데, 그것은 흰색이었다. 그런 다음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의 옆구리 아래에 있는 보속의 교회(또다시 흰색)를 보았다. 이 보속의 교회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에 흠뻑 젖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속의 교회가 자비의 교회로 바뀌고 있다.”

+ 2006년 9월 4일 예수님:

“보속의 교회는 교회 안의 교회, 영성 안의 영성이다. 이것은 신성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영혼들로 구성된 나의 작은 군대다. 이 영혼들은 교회가 신앙의 전통 안에서 정화되도록 모든 것을 봉헌하며, 아이같은 단순함과 신뢰를 가지고 모든 고통을 받아들인다.”

“바로 이런 거룩한 희생 제물로 이루어진 군대로 인해 보속의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의 심장부에 일치를 다시 가져올 것이다.”

+ 2008년 4월 28일 예수님:

“내 어머니께서는 보속의 교회와 ‘남은 신자들의 교회(Church of the Remnant Faithful)’가 하나라고 말씀하셨다. 보속의

교회는 남은 신자들의 교회의 기반이다. 어떤 기초든 그것은 그 위에 지어지는 건물에 토대다. 이 경우, 사도들을 통해 전해져 내려온 신앙의 전통을 선택하는 남은 신자들은 남은 신자들을 위해 봉헌되는 기도과 희생으로 지탱된다. 내 어머니께서는 남은 신자들을 늘리고 강화시키기 위해 이 신비한 보속의 교회에서 봉헌되는 모든 것을 다 모으고 계신다. 남은 신자들의 근간은 바로 보속의 교회다.”

+ 2013년 8월 9일 예수님:

“보속의 교회는 내 비통한 예수 성심에 쏟아부어져야 할 치유의 향유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이 진리에 정면 도전을 해 오는 때다. 진리는 너희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알려지게 될 것이다.”



약속, 보상, 위로

보속의 교회의 직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들의 결의를 굳혀주고 서로간의 일치를 강화시켜줄 약속과 보상, 격려와 위로

+ 1990년 3월 14일 성모님: “지금 예수님께서 건설하고 계시는 보속의 교회는 지상의 어떤 훌륭한 궁전보다도 훨씬 더 큰 만족과 위로를 줄 것이다. 과연, 이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보상이다.”

+ 1990년 6월 2일 성모님: “일단 (보속의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너희 마음이 변화될 것이며 너희는 진정으로 믿음과 사랑과 평화의 표징이 될 것이다.”

+ 1990년 6월 12일 성모님: “오늘밤 사람들에게 그들을 보속의 교회로 데려가려는 내 노력에 저항하지 말라고 말해 주어라.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보상은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훨씬 위대한 것이다. 지나가는 이 세상이 주는 만족을 넘어 천국의 영원한 보물을 바라보아야 할 때가 이미 지났다. 영혼들을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기회들이 매일 매일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있다.”

+ 1990년 6월 22일 (예수 성심으로부터): “보속의 교회에 들어오라는 내 초대에 응답하는 마음들은 나에게 커다란 기쁨이 된다. 나는 지상에서는 그들에게 충분히 보상을 해줄 수 없지만 천국에서 그들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나는 보속의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신속히 응답할 것이다.”

+ 1991년 2월 4일 성모님: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지으라고 한 방주는 지상의 그리스도의 보속의 교회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내 티 없는 성심의 거룩한 피신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교회의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간다.”

+ 1995년 12월 5일 성모님: “이곳 갈바리에서 나는 겸손하고 힘 있는 나의 작은 희생 영혼들을 모으고 있다. 가장 작고 가장 보잘 것 없는 나의 이 군대가 사탄을 쳐부수고 내 티 없는 성심의 통치의 시대를 열 것이다.…십자가 발치에서 나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내 희생 전사들, 내 희생 사도들의 마음속에 용기와 확신을 불어넣어 준다. 바로 이곳, 내 아드님의 눈길 아래서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각 영혼의 마음속에 내 모성적 축복을 넣어주고 있는 것이다. 십자가 발치에서 나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러셨던 것처럼 너희 또한 사랑의 희생 제물이 되라고 요청한다. 내 아드님은 그분이 사랑받고 흠송받는 모든 감실 안에, 세상의 모든 감실 안에 계시는 영원한 사랑의 희생 제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나는 내 기도를 너희의 기도와 일치시키고 있으며 너희를 영원에 이르기까지 사랑한다.”

+ 2004년 8월 27일 예수님: “자신을 완전히 내 어머니께 의탁한 이들은 어머

니께서 보답해 주시는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다. 어머니께서는 실로 이 희생 영혼들을 위해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을 열린 은총의 피신처로 만드실 것이다. 이 소중한 영혼들은 적의 공격에 굴복하지도, 그들의 능력 이상으로 고통받지도 않을 것이다.”

+ 2006년 8월 23일 성 토마스 아퀴나스: “하느님께서는 승리의 시대로 안내할 거룩한 희생 제물의 군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부담스러워 하거나 십자가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감실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자주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 2006년 11월 5일 예수님: “내 형제 자매들아, 너희가 예수와 마리아의 성심

에 보속할 때 너희는 또한 내 신성한 아버지의 성심을 위로해 드린다는 사실을 부디 알기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과거의 십자가들을 내게 봉헌함으로써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다. 자비의 시간이 연장되고, 내 정의(심판)가 하느님의 뜻에 의해 연기된다.”

+ 2007년 2월 10일 예수님: “내 정의의 손은 소수의 희생 영혼들의 노력 때문에 세상에 내려지지 않고 있다.”

+ 2013년 8월 9일 예수님: “보속의 교회는 내 비통한 예수 성심에 쏟아부어져야 할 치유의 향유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이 진리에 정면 도전을 해 오는 때다. 진리는 너희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알려지게 될 것이다.”

보속의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요청

+ 1989년 11월 4일 성모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우리 성심에 어떻게 보속할지 그 방법을 끊임없이 생각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너희의 기쁨조차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봉헌하여라. 이것 자체가 겸손한 행위이며 우리의 성심을 기쁘게 한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매 순간을 살아가라. 믿음과 평화 안에서 살아가라.”

+ 1989년 11월 17일 성모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그리고 매일 보속의 기도에 너희 마음을 열라. 지금부터 예수님이 너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라. 우

리의 성심에 보속하여라. 중죄들이 매일 저질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 1990년 6월 7일 성모님: “나는 너희에게 특히 극악한 낙태죄에 대한 보속의 기도를 바쳐줄 것을 요청한다. 너희는 모두 매일 아침, 기쁨이든 슬픔이든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한다.”

+ 1990년 8월 6일 성모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에게 우리 성심에 보속하는 충실한 보속의 사도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고자 한다. 그렇게 하려면 너희

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 잘 알아야만 한다. 거기에서 너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죽는 완전한 모범을 보게 될 것이다.”

+ 1992년 1월 29일 성모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너희의 봉헌에 대해 좀 더 완전하게 이해하기 바란다. 나는 너희에게 나무로 된 십자가에 봉헌하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시는 예수님께 봉헌하라는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예수님의 수난에 일치시킬 때 너희는 참된 자유를 찾게 되는 것이다. 내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 마음을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고 싶다. 그래서 너희가 매 순간 사랑과 평화 안에 있게 해주고 싶다.”

+ 1996년 3월 12일 과달루페의 성모님: “나는 생명을 거슬러 저질러지는 죄에 대해 우리의 하나된 성심에 보속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너희에게 청하러 왔다. 나는 이런 죄악들에 대한 보속으로 너희가 영성체를 하기 바란다.”

+ 2001년 6월 9일 예수님: “나는 너희가 현 순간에 너희의 불안과 걱정을 모두 내게 의탁하기를 바란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들은 다른 이들의 죄를 보속하기 위해 너희가 내게 봉헌해야 하는 십자가들이다. 이런 종류의 희생은 너희가 이미 용서받은 과거의 죄들에 대해 통회하는 것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한다.”

+ 2013년 11월 1일 예수님: “너희의

일상 생활 안에는 내 비통한 성심을 위로할 길이 많다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라. 이 선교회에 대한 엄청난 논란 가운데서도 선교회를 옹호하고 지지할 때 너희는 조롱하는 구경꾼들의 무리 속에서 앞으로 나와 내 얼굴을 닦아주었던 베로니카와 같다. 너희가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너희는 십자가에 못박히기 전에 옷벗김을 당했던 나와 일치하게 된다. 너희가 다른 이에게 자선을 베풀 때, 설령 그것이 단지 화살기도에 불과하더라도 너희는 기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보속하는 것이 된다. 기도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혼란에 빠진 이들이다.”

“내 비통한 성심은 나와 인류 사이의 심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음에도 온 인류를 위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강하게 고동치고 있다. 나를 위로하고자 하는 너희의 노력을 포기하지 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 2013년 11월 18일 예수님: “너희가 겪고 있는 모든 진리의 타협과 권한 남용을 내게 봉헌함으로써 지금, 바로 이 순간, 내 지극히 비통한 성심에 보속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이런 타협과 남용의 정도가 내 성심의 상처의 심각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너희가 그저 성모송 한 번이라도 기도하며 내게 보속을 바친다면 너희는 내 극심한 고통뿐 아니라 내 정의(심판)의 강도 또한 경감시킬 수 있다.”

보속을 바치는 영혼의 마음의 특징

보속의 교회의 구성원이 지녀야 할 특징과 자질 및 성향



+ 1989년 10월 14일 성모님 (요약): (보속의 교회의 구성원은) 예수 성심을 통해 끊임없이 완덕을 추구한다.

+ 1990년 6월 28일 예수님: “보속의 삶은 조용히 그리고 겸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요약): 자신의 희생과 어려움에 대해 장황하게 말하지 않는다. “희생 영혼은 무엇보다도 역경 가운데 인내심을 키워야 한다.”

+ 1990년 6월 29일 성모님 (요약): (보속하는 영혼들은)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이들은 믿음과 사랑과 평화의 표징이다.

+ 2003년 9월 23일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참된 희생 영혼은 불평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며 고통을 참아보는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 큰 마음의 회심이나 치유가 일어났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 2005년 11월 27일 예수님: “참된 희생 영혼은 어떤 희생도 사랑과 겸손을 벗

어나서 하지 않는다. 그는 미래의 모든 순간은 물론 모든 현 순간을 나에게 의탁한다.”

+ 2012년 9월 11일 예수님: “참된 희생 영혼은 조용히, 그리고 언제든지 가능할 때 모든 것을 봉헌한다. 나는 ‘언제든 가능할 때’ 라고 말했는데, 이는 어떤 고통들은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내와 남편 사이 또는 의사와 환자 사이 같은 경우다.”

“그러므로, 착한 희생 영혼은 마음속에 겸손한 ‘거룩한 사랑’을 지녀야만 하며 진실로 자신을 잊어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만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느님과 이웃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겸손과 사랑의 성덕을 통해 영혼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영혼은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의탁하게 된다.”

“다른 이들에 대한 기도와 봉사는 희생 영혼의 존재를 지탱시켜준다. 그 외 모든 것은 주의를 흐뜨리는 것에 불과하다.”

희망과 격려, 도움의 말씀

+ 1990년 6월 20일 성모님: “나는 니네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보속에 대한 부름에 응답하며 일어나기를 바란다. 나는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우리의 성심에 보속하는 보속의 표징이 되기를 바란다.”

+ 1990년 9월 16일: 저(모린)는 내적으로 천사들의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옆으로 갈라서면서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을 들고 있는 모습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성심이 열렸고 저는 보속의 교회가 성모 성심 안에서 빛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성심은 보속의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다. 이들이 자신에 대해 죽으려고 애쓰는 영혼들이기 때문이다.”

+ 1991년 5월 2일 성모님: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가 너무 힘들 때 너희는 내 아드님의 수난을 묵상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평화를 찾고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 1991년 10월 3일 성모님: “영혼이 희생을 바칠 때마다 그 희생이 아니었으면 은총을 받지 못했을 자격 없는 다른 영혼을 위해 내 성심에서 은총이 베풀어진다. 그러나 내 성심의 은총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하느님의 섭리는 영혼에게 은총이 베풀어지기도 전에 내 성심을 다시 채

워 주신다.”

+ 1993년 9월 29일 성모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특별히 이 샘 (마라나타 샘)이 보속의 교회를 강화시켜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왔다. 이 샘에 오는 많은 이들이 치유될 것이다.”

+ 2005년 5월 5일 예수님: “내가 너희 마음의 중심이 되는 한 너희는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라는 내 부름을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라. 십자가를 사랑하기 시작하여라. 우리는 함께 승리를 거둘 것이다.”

+ 2005년 7월 1일 예수님: “이 강력한 군대는 겸손과 사랑의 결합을 통해, 그리고 내 거룩한 성혈의 방패 아래 계속 전진해 적군으로부터 영토를 되찾을 것이다.”

+ 2011년 10월 18일 성 토마스 아퀴나스 (요약): 두 성심께 대한 보속은 새 예루살렘의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 2013년 8월 9일 예수님: “이 (비통한 성심의) 메달을 착용하는 이는 내 비통한 성심에 작은 희생들을 바치는 일을 잊지 않을 것이다.”

+ 2013년 11월 1일 예수님: “나를 위로하고자 하는 너희의 노력을 포기하지 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기타 말씀들

+ 1990년 3월 19일 성모님: “많은 이들이 금세기를 ‘마리아의 시대’라고 부르지만 나는 ‘보속의 시대’라고 알려지기를 바란다.”

+ 1990년 8월 19일 성모님: “기도와 희생, 오직 이것만이 영혼들을 회개시킬 수 있다. 걱정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라.”

+ 1993년 3월 4일 성모님: “너희가 진실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봉헌하려면, 너희는 삶에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다.”

+ 1994년 4월 7일 성모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성한 사랑이며 거룩한 사랑은 하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각각의 십자가에는 그것을 지고 갈 수 있는 은총이 따른다. 요즘 시대에 나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발뒤꿈치인 희생 영혼의 군대를 일으키고 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남은 신자들은 거룩한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 1994년 5월 17일 성모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한 사랑에 자신을 봉헌하지 않고 십자가에 자신을 봉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1995년 12월 5일 성모님: “너희가 십자가 발치에 있을 때 내가 너희와 가장 가까이 있다.”

+ 1997년 6월 18일 성모님: “나는 내 손에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징표를 간직한 채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라는 칭호 아래 너희에게 왔다. 거룩한 사랑은 천국과 지상 사이의 화해의 다리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다. 내 아드님의 수난과 죽음에서 내가 그분께 협력했을 때 나는 이 사랑의 다리를 모든 인류에게로 확산시켰다. 그러나 나의 이런 역할에 관한 내용은 아직 선포되지 않았다.”

+ 2005년 7월 29일 성모님: “내게 자신의 십자가를 기쁨과 사랑으로 봉헌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통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삶으로 부른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 2006년 11월 5일 예수님: “너희가 현순간에 영원히 잃게 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다. 너희가 영원한 현재 안에 쌓는 것은 너희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다.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은 영원하다.”

+ 2013년 7월 28일 예수님: “진실한 마음을 가진 영혼이 이 성지에 발을 들여놓을 때 얻는 분별의 인장은 그가 나의 지극히 비통한 성심에 대한 보속을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나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너희에게 말해준다. 거룩한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 자신의 오류와 잘못이 드러날 때 영혼은 진리의 빛에 휩싸이고, 그의 자유의지의 동의에 따라 깊은 회개의 과정이 시작된다.”

십자가에 봉헌하는 기도

(보속의 교회에 들어가는 열쇠)

“나의 예수님, 오늘 저는 제 자신을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에 봉헌하
나이다. 온 인류를 위해 당신께서 그 큰 십자가를 지셨듯이 저도 제
삶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것을 맹세하나이다. 사랑하옵 예수님, 제
가 받는 모든 고통을 제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기 위해
당신께 돌려드리나이다. 저는 지극히 복되신 어머니와 우리의 형제
인 성 요한과 함께 당신의 십자가 발치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
겠나이다. 사랑하옵 구세주시여, 당신을 위로해 드리는 것이 저의
유일한 기쁨이 될 것이옵니다. 아멘.”

- 성모님 / 1990년 12월 4일

“예수님, 저는 사랑으로 과거의 제 모든 십자가를 당신께 드립니다.”

- 예수님 / 2006년 11월 5일

ARCHANGEL GABRIEL ENTERPRISES INC.

37137 Butternut Ridge Road

North Ridgeville, OH 44039

Phone: 440-327-4532

E-mail: customerservice@rosaryoftheunborn.com

To order online: www.RosaryOfTheUnborn.com

Website: www.RosaryOfTheUnborn.com

ISBN: 978-1-937800-76-5

